

# 시 세 동 향



추석 명절 전후로도 큰 시세변동을 보이지 않던 약재값이 지난 여름 수해 영향으로 흉작이 예상되자, 몇몇 약재가 상승 무드를 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구기자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철 보약을 짓기 위해 약령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분주한 가운데, 그동안 침체돼 있던 약전골목 마다에서 조금은 생기가 피어나는 듯 하다.



◇중국 최대의 약령시인 동방약성.

## 동방약성을 다녀와서

중국 중부의 대평원에 유수수 숲이 울창한 절벽이 즐비하고 그 사이사이면 화석이 만발하고 포근한 기후를 자랑한다. 우리 일행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약 4일간 이곳을 여행했다. 특히 이곳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10년째 된 약재들이 30% 정도 인공적으로 재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약재의 수확량을 늘리고, 약재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 각지에서 모인 약재들로 규모면에서는

### 세계제일 사랑할만 하지만, 미비점도

을 모시고 생약농업의 돌파구를 찾고 중국의 생산동향과 유통구조에 대한 여야를 보고자 발원지에 올랐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중국 동방약성에서 약 35도가 넘는 무더위도 마다하고 약초재배 지부터 견학하기로 하고 안산시 일대에 재배되고 있는 황기, 질경리, 대황 등 두충재배 및 관리를 대하고 새로 도입한 약재들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해 주셨다. 특히 대황은 10년 이상 재배된 것이 좋다고 한다. 대황은 약재의 수확량을 늘리고, 약재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구기자** 구기자 산지인 충남지역이 지난 여름 가장 큰 수해를 입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올 구기자 농사는 흉작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 벌써 부터 구기자 시세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근당 도매시세가 6천~6천5백원 선이던 구기자가 지금은 근당 7천~7천5백원선으로 꺾충 뛰어 올랐다.

**강 황** 큰 가격변동 없이 적정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6천원 선이다.

**작 약** 지난 90년이래 전국적으로 과잉재배 재배 온 품목으로 여전히 예전 시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중 거래되고 있는 근당 도매시세는 의성산이 2천5백~3천원 선, 전라도산이 2천~2천5백원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독 활** 전국적으로 과잉재배 된 품목 중의 하나.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독활 근당 도매시세는 1천 4백~1천5백원 선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입실이 주산지이다.

**반 하** 충남 서산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반하 도매시세는 근당 9천원 선으로 지난달과 보합세. 수입 반하는 4천~4천8백원 선에서 시중 거래되고 있다.

**백 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백출 도매시세는 근당 8천원 선으로 지난달과 보합세. 백출 역시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 품목으로 수입산이 많다. 수입 백출은 근당 3천5백원 선에서 도매 유통되고 있다.

**산 수유** 지난달 근당 5천~5천5백원에 거래되던 산수유 도매시세가 6천~6천5백원으로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산수유는 전라남도 구례가 산지이며 최근에는 경기도 양평에서도 산수유가 재배되고 있다.

**산 약**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식산약 근당 도매시세는 5천원 선이며 생산약은 1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산약 시세는 지난달 6천5백원에서 큰폭으로 떨어진 상태로, 수입산약의 영향 탓인 듯.

**택 사** 그동안 3천2백원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해 오던 택사 가격이 다소 내림세.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세는 근당 3천2백~3천5백원 선이다.

**항 부자** 시중 거래되고 있는 항부자 도매시세는 근당 1천8백원 선이다. 이는 지난달 2천1백원 하던 시세보다 다소 내린 가격으로 헛 것이 나오기 까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천 궁** 헛것 출하를 앞두고 천궁가격도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1만4천원 선까지 육박할 듯 하던 천궁시세가 근당 1만1천원 선으로 툭 떨어졌다. 일천궁 또한 9천5백원 선에서 6천원대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 귀** 부인네들의 사물탕 재료로 보혈제로 주로 이용되는 당귀 도매시세는 막당귀가 근당 5천원 선, 신당귀가 7천~8천원선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백 지** 근당 도매시세로 2천3백~2천5백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오미자** 국내산이 근당 도매시세로 1만~1만2천원 선 인 반면 수입산은 근당 4천원 선이 고작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연산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국내산 오미자는 거래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갈 근** 국내산은 도매시세로 근당 1천2백원 선, 수입 갈근은 3백~5백원 선이 고작이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상대적 가격차 때문에 실소비자들로 부터 국산은 외면당하는 실정.

벗겨낸 부분만 즉시 비닐팩으로 막아 수분증발을 억제시켜 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3년 주기로 두세차례 심행한다. 특히 두충나무열매의 씨로 만든 기름(약용)은 기존 약용기름에 사용되는 약용기름의 5배에 가까운 수율을 얻는다. 또한 두충나무에서 생수한다기 때문에 대다수 수확량이 실패를 해 주셨다.

### 건강 메모

약술은 기원전 천년 경 중국에서 이미 발명하고 주나라가 들이 서면서 주의 임금周公의 20여가지 약주로 약술을 스스로 만들어 애용하여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연나라수, 신진강의 명주(周公百歲酒)로 주공은 약술을 마시며 장수를 누렸다고 한다. 건강의 계절로 접어드는 이때, 우리 주변

### 생약재를 이용한 약용주 담그는 법

(과실에는 수분이 많은 것들이 많고,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많다.)

▲적합한 생약재료  
 인삼, 황기, 우슬, 오미자, 오가피, 구기자, 오미자, 대추, 산사자, 당귀, 홍삼, 감미료, 설탕, 꿀, 알코올, 식염수, 물

▲담그는 법  
 1. 생약재를 잘 씻고 물기를 빼고, 알코올이나 설탕, 꿀을 넣고 잘 섞는다.  
 2. 담그는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알코올이나 설탕, 꿀을 넣고 잘 섞는다.  
 3. 담그는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알코올이나 설탕, 꿀을 넣고 잘 섞는다.  
 4. 담그는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알코올이나 설탕, 꿀을 넣고 잘 섞는다.  
 5. 담그는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알코올이나 설탕, 꿀을 넣고 잘 섞는다.